

## 2. 신라말 전남지역 호족의 동향

신라 말 특히 진성여왕대 이후, 전국 각지에서 호족이 대두하여 해당지역을 정치적·군사적·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이러한 호족의 지방지배는 전남지역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당시 전남지역 호족의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9세기 중반인 830~840년대에 존재했던 전남지역 지방세력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9세기 중반의 전남지역 지방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은 장보고였다. 그는 40여 년 후에 일어나는 호족세력의 본격적 등장을 예고하는 인물이다. 그는 흥덕왕에게 요청하여 청해진을 설치하고 청해진대사(淸海鎭大使)가 되었다. 이는 신라의 해안에 출몰하여 신라인을 약탈하여 노예로 팔아넘기는 노예무역선을 소탕하고, 이러한 해적선의 횡행으로 신라인의 해상무역활동이 지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흥덕왕에게 1만 명의 사졸을 제공받고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당시 신라조정의 형편으로 1만 명 정도의 군사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 1만 명은 완도를 중심으로 한 연해안 및 도서의 토착주민 중에서 동원한 군정(軍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사졸 1만 명은 일종의 민군조직(民軍組織)일 것이다.

청해진이 설치된 이후에 그동안 한반도 서남해안에 출몰하던 노예무역 해적선은 완전히 퇴치되었다. 이는 장보고가 서남해안 일대의 해상권을 장악하여, 해적선을 직접 소탕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예무역에 연결된 소규모의 여러 해상세력가들을 철저히 단속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리하여 서남해안지역에 안정과 평온이 찾아들었다. 장보고의 해상권 장악은 해적선 소탕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신라·당·일본 3국의 교통과 무역을 독점하여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국제무역의 왕자가 되었다.

장보고는 이러한 성공으로 중앙정치에 개입하게 되었다. 그는 839년에 5,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민애왕(閔哀王)을 축출하고 우징을 신무왕(神武王)으로 옹립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이로써 2년 이상 끌어온 왕위계승 쟁탈전이 끝나게 되었다. 이에 신무왕은 장보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를 감의군사(感義軍使)로 삼고 식읍 2,000호를 주었다. 이는 완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장보고의 실제적인 지배력을 인정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무왕은 즉위 후 6개월 만에 죽고 태자인 경응(慶膺)이 문성왕으로 즉위하였다. 문성왕은 장보고의 딸을 그의 왕비로 맞으려고 하였다. 이에 조정의 신하들은 장보고의 신분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마침내 문성왕은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지 않았다. 장보고가 딸을 왕비로 만들려고 시도한 것은 골품제도를 기초로 한 진골 중심의 신라 지배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해상무역으로 생긴 경제력과 청해진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장보고의 세력이 경주까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라조정은 장보고의 그러한 시도를 꺾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하여 장보고는 원망을 품고 있었고 이러한 장보고의 존재는 신라조정에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되었다.

이런 사정으로 신라조정은 841년에 염장(閔長)을 보내어 장보고를 암살하였다. 염장은 어떠한 인물일까. 그는 무주(武州)지역의 토호 혹은 지방세력가였는데, 무주의 중심지인 현 광주 인근지역 출신으로 짐작된다. 그러니까 그는 해상세력이 아니라 내륙 토호세력이었다. 또한 당시 중앙정계의 실력자로서 장보고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김양의 부하로서 그와 긴밀한 관

계를 맺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염장은, 중앙정계로 세력을 확장하던 장보고를 막으려는 중앙귀족의 사주를 받아 장보고를 암살한 것 같다.

장보고는 중앙귀족의 사주를 받은 무주지역 내륙 토호세력에게 제거되었다. 무주지역의 내륙 토호세력이 장보고를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무주지역의 내륙 토호세력은 장보고의 세력확대 및 중앙정계 진출로 기득권을 크게 위협받았을 것이다. 이에 그들은 중앙정부의 권위에 의존하여 해상세력을 장악함과 동시에 해상무역의 이익을 차지하고자 하였다고 짐작된다. 결국 무주지역의 내륙 토호세력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중앙정치세력과 결탁하여 그들의 사주를 받아 장보고를 암살하였던 것이다. 장보고의 죽음은 곧바로 청해진과 해상왕국의 붕괴를 가져왔다.

그후 염장은 장보고를 살해한 공으로 제6관등인 아찬(阿粲)에 오르고, 이어 무주의 차관직인 별가(別駕 : 주조의 별칭)에 임명되었다. 이와 같이 그는 신라정부의 고위지방관이 되어 청해진을 중심으로 한 해상세력을 통제하였다. 이에 장보고의 부장(副將)이었던 이창진(李昌珍) 등이 염장의 통제에 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으나 염장에게 진압되었다. 그후 청해진의 장보고 잔여세력은 염장의 통제를 피하여 일본으로 망명하는 자가 많았는데, 염장은 이전에 장보고의 부하였던 이소정(李少貞) 등을 일본에 파견하여 청해진 주민의 일본망명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장보고계의 해상세력인 청해진 주민은 염장의 압제에 끊임없이 저항하였고 이는 당국의 가중된 탄압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851년 2월에 신라정부는 청해진을 폐지하고 그곳의 주민들을 내륙의 벽골군(碧骨郡 : 현 김제)으로 집단이주시켰다. 그리하여 장보고가 암살된 이후에도 10년 동안이나 계속된 청해진의 장보고 잔여세력에 대한 통제가 완료되었다. 이와 같이 청해진을 중심으로 한 해상세력은, 장보고가 암살된 이후로도 10년 동안이나 염장으로 대표되는 무주지방의 내륙 토호세력 및 중앙정부에 끈질기게 저항하였다. 이러한 해상세력과 내륙 토호세력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청해진 폐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그대로 잠복하여 존속하였다. 그리하여 40여 년 후 견훤이 무주에서 자립할 시기에 두 세력 사이의 대립·갈등관계는 다시 표출되었다. 당시 무주의 서남해안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호족들과 무주의 동북내륙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견훤세력 사이의 대립·갈등은 기본적으로 장보고가 암살될 무렵의 해상세력과 내륙 토호세력의 대립·갈등에 연유하는 측면이 크고 또한 그것과 유사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9세기 중반에 순천지방에 존재했던 지방세력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료가 없으므로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다. 다만 당시 순천지역의 지리적 입지를 살펴봄으로써 추측해볼 수밖에 없다.

당시 순천은 해상무역보다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내륙 군현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순천의 지방세력은 대체로 내륙 토호세력의 성격을 띠다고 추측된다. 더욱이 순천의 북부내륙 지역, 특히 주암면 일대는 당시 곡성군(谷城郡)의 속현이었던 부유현(富有縣)의 중심지역이었던 만큼, 이곳의 지방세력은 내륙 토호세력의 성격을 띠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당시 순천의 남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해안지역이었고 포구가 있었으므로 해상세력이 존재했을 것이다. 당시 전남지역 서남해안의 여러 해상세력들은 대체로 장보고의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순천지역의 해상세력은 장보고의 휘하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순천지역 해상세력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들은 독자성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며, 이는 장보고 사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장보고의 해상왕국이 무너진 후에 전남지역의 해상세력은 각 지역별로

독자성을 지니면서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